



스위스재보험, 1억 6백 5십만 달러규모 자연재해 채권 발행

Contact:

Media Relations, Zurich  
Telephone +41 43 285 7171

Corporate Communications, London  
Telephone +44 20 7933 3445

Corporate Communications, Asia  
Telephone +852 2582 3660

Corporate Communications, New York  
Telephone +1 212 317 5663

Investor Relations, Zurich  
Telephone +41 43 285 4444

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 
Mythenquai 50/60  
P.O. Box  
CH-8022 Zurich

Telephone +41 43 285 2121  
Fax +41 43 285 2999

2010년 12월 16일, 서울 - 스위스재보험은 북대서양 허리케인, 유럽 폭풍, 캘리포니아 지진, 일본 지진 및 일본 태풍 피해를 담보하는 1억 6백 5십만 달러 규모의 Vega Capital Ltd(“Vega”) 자연재해 담보 채권을 발행했다.

이는 Vega 자연재해 채권의 2차 발행으로 이를 통해 스위스재보험은 다사고(multi-event) 및 다위험(multi-peril)에 대한 3년간의 자연재해 담보 프로그램을 확보했다. Vega는 발행 회수에 제한이 없는 유연한 구조이며 채권 소유자의 원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금 계정이 있는 최초의 재해채권이다.

스위스재보험의 손해보험 리스크 전환팀(Non-Life Risk Transformation)의 책임자 마틴 비스핑(Martin Bisping)은 “스위스재보험은 Vega를 통해 다수의 대형 재해로 인한 수익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”고 밝혔다. 그는 또한 “이는 다섯 가지 서로 다른 자연재해 시나리오에 대한 투명한 지표와 효율적인 구조의 조합을 통해 탄생한 혁신적인 재해채권”이라고 설명하고 “Vega는 발생이 빈번한 재해 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이전하는 스위스재보험의 또 하나의 혁신적 상품”이라고 덧붙였다.

투자자는 두 가지 리스크 클래스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. 지표가 보다 강화되었으며 다양한 지역의 다섯가지 서로 다른 자연재해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.

클래스	국가별 금액	기간	금리	등급
클래스 C	6천3백9십만 달러	3년	변동금리	Ba3
클래스 D	4천2백6십만 달러	3년	해당 없음	등급 없음

2010년 12월 13일 마감된 이번 사모발행은 1억 6백 5십만 달러에 달하는 PAR(principal-at-risk) 변동금리부 채권으로 미증권거래위원회의 144A 규정에 따라 다양한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되었으며 스위스재보험 자본시장(Swiss Re Capital Markets)부문이 그 구조화 및 보험심사를 주관하였다.

편집자 주

#### 스위스재보험

스위스재보험은 고도로 다각화된 선도적 글로벌 재보험사로 전 세계 20 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. 스위스재보험은 1863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. 손해보험 상품,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.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(Standard & Poor's)로부터 'A+'를, 무디스(Moody's)로부터 'A1'을, 에이엠 베스트(A.M. Best)로부터 'A'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